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2 pp. 730-736,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73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김영임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Influence of dental hygienists compassion competency on resilience

Young-im Kim
Division of Dental Hygiene, Jeonju Visio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20년 4월 부터 6월까지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특성에 따른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t-test와 one-way ANOVA,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69, p<0.001)로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은 적합된 회귀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2.856, p<0.05), 설명력은 52.4%였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직업만족의 매우만족과 만족하는 그룹의 임상경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역량에서는 지지(β=.56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강인성, 지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과 연관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을 증진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서 치과병·의원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mpathy of dental hygienists on resilience.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June 2020 on 200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Jeollabuk-do.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18.0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bility to empathize and resilience is significant (r=.669, p<0.001) thus showing that the higher the capacity to empathize, the higher the resilience of recovery. The resilience of the dental hygienis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suitable regression model (F=12.856, p<0.05) with an explanatory power was 52.4%.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highly satisfied and satisfied groups and clinical careers in occupational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factors. Support for empathy (β=.569)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Strength and persistence have also been shown to be influential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bove study, it was found that capacity to empathize is related to resilience. In the future, we intend to establish an effective strategy to create a desirable culture for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by enhancing the empathy and resili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Keywords : Clinical, Compassion Competency, Dental Hygienists, Job Satisfaction, Resilience

*Corresponding Author : Young-Im Kim(Jeonju Vision College)
email: yikim@jvision.ac.kr
Received August 6, 2021 Revised August 25,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대상자의 입을 통한 공감이 아닌 마스크 속에 가려진 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고통을 먼저 접한다. 치과 병·의원은 대상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1], 자신 본래의 감정을 감춘 채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환한 표정으로 대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감정표현을 억압하며 진료에 임하고 있다[2]. 치과위생사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입장을 느끼고 정확하게 지각하여 상대를 이해하며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 공감해줄수록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인식이 될 것이므로, 공감역량은 치과위생사에 꼭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공감역량은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 교감을 통하여 대상자 감정을 함께 느끼는 감정이입의 교차점으로[3] 환자의 만족도, 치료 순응도, 정확한 진단,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4].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기본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여 치료적 관계를 맺고 양질의 치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하는데 중요한 역량으로 공감능력이 요구된다[5]. 더불어 치과위생사는 수많은 대상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치위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이해하며 즐거운 감정으로 적절한 공감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위생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업무 외에도 다양한 치위생 업무 역할요구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따른 구강건강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높은 지적수준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전문직업인으로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핵심인력[6]으로 자신의 직무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인력인 치과위생사는 급격한 의료수요의 상승으로 인하여 병원 간의 경쟁 심화, 과다한 업무량 및 의료분쟁 증가 등으로 진료 긴장감과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7]. 이에 치과의료 환경에서는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며,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과 임상 전문가로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요구된다[8].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극복과 환경적 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9]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잘 이겨내고 회복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얻게 한다[10]. 또한, 탄력성(resilience)은 '다시 되돌아옴', '회복력', '탄성'으로 단순히 상처받지 않는 것을 의미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능력으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기능수행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다[11].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직무만족은 치과위생사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12].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요인으로 대상자를 이해하여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인 공감역량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러나 치위생 분야에서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인간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13,14]되어 왔으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을 분석한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치과위생사 커뮤니티와 SNS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대상자의 윤리보호 및 익명성의 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전라북도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URL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15에 필요한 표본수는 150명이 요구되었다. 탈락률 고려하여 대상자를 200명 모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에는 총 190명(회수율 95.0%)을 연구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은 17문항, 회복탄력성은 25문항, 일반적 특성 6문항으로 총 48문항을 조사하였다.

2.2.1 공감역량

공감역량은 Lee와 Seomun[15]의 간호사의 공감역량 측정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17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하였다. 본 도구는 소통력 8문항, 민감성 5문항, 통찰력 4문의 3개 하위요인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공감역량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Seomun[15]의 연구는 Cronbach's alpha=0.9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이었다.

2.2.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가 개발한 한국형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16]를 수정·보완하여 강인성 9문항, 지속성 8문항, 낙관주의 4문항, 지지 2문항, 영성 2문항의 5개 영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도구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연구[16]는 Cronbach's alpha=0.8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3이었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3.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의 평균은 3.59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소통성 3.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감성 3.42점, 통찰력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평균 2.36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지지가 2.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인성, 낙관주의, 지속성, 영성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ompassion Competency and Resilience

Classification		Division	M
Compassion Competency	Communication skills	3.74	0.41
	Sensitivity	3.42	0.34
	Insight	3.31	0.59
	All	3.59	0.70
Resilience	Toughness	2.49	0.46
	Persistence	2.26	0.54
	Optimism	2.42	0.69
	Support	2.76	0.77
	Spirituality	1.99	0.65
	All	2.36	0.8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공감역량에서는 직업 만족도($p<0.001$), 최종학력($p<0.001$), 결혼상태($p<0.05$)가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회복탄력성에서는 총 근무년수($p<0.05$), 직업만족도($p<0.05$), 결혼상태($p<0.001$)가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between Compassion Competency and Resili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Compassion Competency		
		N	Mean±SD	t or F (p)
Gender	Male	13	3.62±0.51	1.22
	Female	177	3.79±0.49	(0.680)
Age(y)	≤25	60	3.81±0.37	0.29 (0.881)
	26-30	73	3.74±0.45	
	31-35	25	3.80±0.74	
	36-40	20	3.85±0.51	
	>40	12	3.75±0.17	
Work career (y)	< 1	41	3.77±0.36	1.48 (0.208)
	2-5	64	3.74±0.43	
	6-10	54	3.79±0.59	
	11-15	17	3.73±0.50	
	>15	14	4.08±0.63	

Classification		N	Resilience Mean±SD	t or F (p)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5	4.08±0.50	4.03 (0.001***)
	Satisfied	70	3.87±0.52	
	Common	85	3.65±0.38	
	Dissatisfied	16	3.89±0.63	
	Very dissatisfied	4	3.54±0.86	
Education level	College	139	3.70±0.46	6.82 (0.001***)
	University	46	4.00±0.52	
	Above university	5	3.83±0.31	
Marital status	Single	141	3.88±0.61	-1.33 (0.020*)
	Married	49	3.75±0.43	
Gender	Male	13	3.39±0.57	-0.14 (0.250)
	Female	177	3.41±0.44	
Age(y)	≤25	60	3.26±0.51	1.173 (0.324)
	26-30	73	3.43±0.51	
	31-35	25	3.47±0.75	
	36-40	20	3.50±0.60	
	〉40	12	3.42±0.55	
Work career (y)	〈 1	41	3.20±0.46[a]	2.50 (0.044*) a〈e
	2-5	64	3.39±0.54[b]	
	6-10	54	3.47±0.59[c]	
	11-15	17	3.38±0.60[d]	
	〉15	14	3.69±0.71[e]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5	3.82±0.60[a]	5.85 (0.004*) a〉e
	Satisfied	70	3.51±0.49[b]	
	Common	85	3.29±0.48[c]	
	Dissatisfied	16	3.13±0.89[d]	
	Very dissatisfied	4	2.89±0.53[e]	
Education level	College	139	3.32±0.52	4.38 (0.014*)
	University	46	3.59±0.65	
	Above university	5	3.52±0.46	
Marital status	Single	141	3.50±0.43	3.29 (0.001***)
	Married	49	3.68±0.23	

* by t-test one- way ANOVA (*** p〈0.001, * p〈0.05)

3.3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69, p〈0.001)로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인 강인성(r=.543, p〈0.05), 지속성(r=.418, p〈0.05), 낙관주의(r=.577, p〈0.05), 지지(r=771, p〈0.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ygienist of Compassion Competency and Resilience

	x1	x2	x3	x4	x5	x6	x7
x1	1						
x2	.669***	1					
x3	.543*	.547**	1				
x4	.418**	.624**	.457**	1			
x5	.577*	.584**	.529*	.547**	1		
x6	.771***	.656**	.557**	.695**	.539**	1	
x7	.343	.556	.455	.295	.260	.211	1

* : p〈.05, ** : p〈.001

x1: Compassion competency x2: Resilience x3: Toughness x4: Persistence x5: Optimism x6: Support x7: Spirituality

3.4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의 하위요인인 강인성, 지속성, 낙관주의, 지지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근무년수, 최종학력 등을 가변수 처리하고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 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2.856, p〈0.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2.4%였다. 독립변수 중 직업만족도에서 매우만족과 만족하는 그룹과 임상경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역량 중 지지(β=.56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강인성, 지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Classification	B	SE	β	t	p
Work career	0.524	0.026	0.394	3.721	0.000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0.583	0.023	0.479	2.421	0.044
Job satisfaction(satisfied)	0.490	0.027	0.554	4.124	0.015
Toughness	0.223	0.159	0.349	2.148	0.021
Persistence	0.312	0.017	0.426	1.942	0.042
Support	0.442	0.051	0.569	1.428	0.015
R^2 = 0.536 Adjusted R^2=0.524, F=12.856(p〈0.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4. 논의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을 증진시키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서 치과병·의원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의 평균은 3.59점이었으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Kim[17]의 연구는 3.01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18]의 연구에서는 3.59점이며, Seon과 Chung[19]은 3.6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공감역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구체적인 비교는 어려움이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2.36점이었으며 중간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Park과 Kang[14]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48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달리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20]의 회복탄력성은 3.54점이며, Kim 등[21]의 연구에서는 3.37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의 평균 회복탄력성 점수[22]는 3.68점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낮은 회복탄력성은 조직 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힘들며[23], 어려움과 역경이 발생할 시 기회로 혁신하여 더 성장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업무의 적응력 및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 모색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대상자와 치과위생사 간의 관계에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상자의 느낌을 공유하고 그 느낌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공감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공감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었으며, 추후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eon과 Chung[19]의 공감역량은 대인관계능력, 직무만족도,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환자를 이해하는 공감역량이 높아질수록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면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감을 감소시키거나 약화할 수 있는 개인의 조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또한, Cho와 Seo[25]의 연구에서는 공감역량과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역량이 높은 간호사는 스트레스나 소진에서의 회복능력인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즉,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증진됨으로 공감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만족도에서 매우만족과 만족하는 그룹과 임상경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역량 중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강인성, 지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13]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전문적 지지, 치과 조직, 환자 관계, 동료 관계가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Kang[14]의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능력과 조직몰입은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만족과 공감역량이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감역량이 낮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위생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대상자를 존중하고 감정이입을 향상을 위한 공감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만족이 낮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치과병·의원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1. 공감역량에서는 직업 만족도($p<0.001$), 최종학력($p<0.001$), 결혼상태($p<0.05$)가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회복탄력성에서는 총 근무년수($p<0.05$), 직업만족도($p<0.05$), 결혼상태($p<0.001$)가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관련요인으로 직업만족도에서 매우만족과 만족하는 그룹과 임상경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 역량 중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강인성, 지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이 회복탄력성

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치과위생사의 공감역량을 증진시키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I. S. Kim,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turnover intention among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in*, Vol.15, No.4, pp.515-526, 2009.

[2]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1995, pp.5-30.

[3] M Hojat, Empathy in patient care: antecedents, development, measurement, and outcomes, Philadelphia,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7, pp.1-296.

[4] J. H. Park, S. Y. Chung.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36-244,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36

[5] M. H. Kang, S. J. Jang.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burnout, Job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the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8, pp.95-101,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8.095

[6] M. S. Kim, H. W. Kim, K. H. Cha,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5, No.2, pp.19-39, 2001.

[7] H. O. Lee, O. J. Ju, Y. I. Kim, "An Analysis on Factors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at J Region", *Dent Hyg Sci*, Vol.7, No.2, pp.65-72, 2007.

[8] M. McAllister, J. McKinnon.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resilience in the health disciplin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 today,* Vol.29, No.4, pp.371-379, 2009.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8.10.011

[9] E. 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5.1067

[10] Y. H. Kim. *Effects of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Kosin University, Busan, 2016.

[11] M. H. Kim.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2001.

[12] D. B. Slavitt, P. L. Stamps, E. B. Piedmont, A. M. Haase, "Nursers' satisfaction with their work situation", *Nurs Res*, Vol.27, No.2, pp.114-120, 1978.

[13] J. H. Kim, M. Y. Kim.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ists", *Korean J Health Commun* Vol.9, No.1, pp.1-10 2014.

[14] S.H. Park, H.K. Kang. "Factors affecting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is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 *Korean Soc Dent Hyg*, Vol.19, No. 6, pp.983-992, 2019.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4

[15] Y. J. Lee, G. A. Seomu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urses' compassion competence." *Appl Nurs Res,* Vol.30, pp.76-82, 2016.
DOI: https://doi.org/10.1016/j.apnr.2015.09.007

[16] K. M. Conner, J. R.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The Connor-Davidson 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18, No.2, pp.76-82, 2003.

[17] J. Y. Kim. "Convergence Effects of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Labor in some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Vol.9. No.5. pp.53-60.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5.053

[18] H.. K. Lee.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Compassion Competenc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6, No.5, pp.15-22, 2015.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5.6.5.015

[19] Y. M. Seon, K. H. Chung. "Effect of Nurses' Compassion competence on Personal Relations,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AJMAHS*, Vol.9, No.9. pp.489-500,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9.042

[20] Y. H. Jang, E. N. Park.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Trust, Resilience, and Compassion Fatigue on th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 Kor Soc Fish Mar Edu,* Vol. 33, No.3, pp. 597-610, 2021.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21.6.33.3.597

[21] M...J. Kim, Y.S. Park, Y.H. Kwon. " The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on burnout.", *JKAIS*, Vol.16, No.2, pp.1284-1291.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2.1284

[22] J. H. Kim. Resilience, 1st ed. Goyang: Wisdom house, 2011, pp.61-79.

[23] S.Y, Oh, S. C, Roh, M.U. Kang, Y. W. Suh, "Resilience as a mediator link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person-centered organizational cultur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Korean J Ind Organ Psychol,* Vol.28, No.4, pp.829-54, 2015.
DOI: https://doi.org/10.24230/ksiop.28.4.201511.829

[24] H. J. Cho, M. S. Sung, "Effect of empathy, resilience, self-care on compassion fatigue in oncology nurse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0, No.4 pp.373-382, 2014.
DOI: http://doi.org/10.11111/jkana.2014.20.4.373

[25] J.H. Cho, K.W. Seo,"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Resilience of Clinical Nurs", *Journal of Wellness*, Vol.13, No.4, pp.51-60, 2018.
DOI:http://dx.doi.org/10.21097/ksw.2018.11.13.4.51

김 영 임(Young-Im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 보건학